東友會報

發行人 崔 載 九
編輯人 尹 天 泳
印刷人 金 東 立

發行所
서울特別市 中區 筆洞
3街26 東國大學校 內
東國大學校
同窓會
直通(267)8568
交換(267)8131~9
非賣品

우편대체구좌번호
525669번

本會는 同門相互間의 友誼增進과 母校發展에 기여키 위한 事業을 전개한다

東國雄飛의 새章… 慶州分校탄생

文敎部인가 人文社會과학분야등 10個科 4백명

校勢擴張의 一大轉機마련

漢醫豫科신설 二部大 四個科 증설도

모교는 숙원이었던 分校設置의 소망이 이루어져 古都 慶州에 人文社會系및 개학과 4백명을 정원으로하는 慶州分校의 인가를 받았다. 지난7일 文敎部에서 발표한 79학년도 大學定員조정내용에 따르면 모교는 또한 二部大學에 6個學科 2백50명이 증원되어 新學年度 入學정원은 총58개학과 1천9백60명으로 늘어났다.

總入學定員 1천9백60명

이번에 民族文化와 護國佛敎의 발생지인 慶州에분교를 설치, 宗立大學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여 校勢擴張의 거보를 내딛게 된 모교는 이와함께 현지에校地 17만여평을 확보하고그 매입을 서두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교의 경우, 1천3백10명 정원의 50%에해당하는 6백50명이 增員, 타교보다 월등한 增加率을 보였는데, 이는 모교의 경주분교신설및 2部大學육성책이 政府의 首都圈 人口소산및 근로青少年 就勞機會확대시책에 부합되었기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慶州分校는 漢醫豫科·佛敎美術學科·國史學科·日語日文學科·貿易學科·經濟學科·會計學科·國語國文學科·英語英文學科등의 10개학과가, 二部大學은 社會開發學科·經營學科·貿易學科·經濟學科등 4개학과신설(정원각40명)을 비롯하여 會計學科와 電子計算學科는 40명과 50명이 각각 증원되어 정원이 80명으로늘었다. <別表참조>

慶州分校의 漢醫豫科는광활한 演習林을 활용하여藥材用 動植物을 생산하고기존 理學분야와의 교류로漢醫學의 과학적 체계화에이바지하게 되는데, 모교에漢醫豫科가 신설됨으로써 수년래의 醫學系列학과 설치의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國內최초로 경주분교에 설치한 불교미술학과는 경주의 역사적·지리적 특성에 부합되는 학과로서 불교미술의 발굴, 연구와차달에 기여함으로써 宗立大學의 特長을 살리게되며, 국어국문학과의 신설로 모교 문학전통의 활성화에더욱 박차를 가할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明年부터 門을열게될 경주분교의 개설학과는 모교가 70여년간, 그 교육에 70여년의 전통을가지고 質量에 있어서도 많은 인재를 이나라 문화계에 배출한 인문계와, 30여년의 경험을 가진 社會系가 대부분인 까닭에 각분야의 운영체계의 合理化만 이루어지면 큰차질은 없을것으로 보여져 타대학의분교설치에 비하여 유리한조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본교에 투입될 자금의 조달과 교육요원의확보, 합리적인 운영체계, 학생자질의 향상문제등 세심한 주의가 요청되며, 이를계기로 국내굴지의 校史를 자랑하는 모교의 권위를크게 떨칠 수 있는 東國도약의 알찬 전기가 되었으면 하는것이 全東國人의 바램이 되고 있다.

◇79학년도 入學定員·증원내용

慶州分校	經營學科	40	名
	貿易學科	〃	
	經濟學科	〃	
	國史學科	〃	
	國語國文學科	〃	
	英語英文學科	〃	
	漢醫豫科	〃	
	佛敎美術學科	〃	
	日語日文學科	〃	
	會計學科	〃	
	10개學科 (新設)	4백명	
二部大學	經營學科 (新設)	40名	
	經濟學科 (〃)	〃	
	貿易學科 (〃)	〃	
	社會開發學科 (〃)	〃	
	會計學科 (增員)	40명增	定員80名
	電子計算學科 (〃)	50명增	定員80名
	6個學科	250名	增員
計	16個學科	650名	增員
總	58個學科	1천9백60名	募集

同門들의 反應

傳統·特性啓發好機

▲趙明基(31 中央佛專·前모교總長)=大學의 擴充일환으로 分校설치가 불가피한 現時點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日本大學을비롯 日本의경우는 3~4개씩 分校가 있어도 거리감없이 잘운영되고있다. 모교의 建學理念과 傳統및特性을 잘살려나가야한다.

漢醫豫科 좋은着想

▲金遺腹(51政·江南터미날社長·本會부회장)=이제 母校는 量的인 팽창면에서 일단 성공해나가고 있다. 특히 漢醫豫科 설치는 醫大가 없는 모교가 綜合大學으로서의 면모를 一新하려는 意志가 뭔것이다. 分校설치를 계기로 개교72주년의 傳統을 더욱 꽃피우는 質的인 向上에 모두가 보다 분발하였으면 한다.

對他校, 競合不可避

▲金正燾(52 經濟·大邱安逸과 惰性에서 과감히벗어나 百年, 千年을 내다보는 巨視的·遠視的 안목으로 大學發展을 유도해나가야 할것이다.

民族私學 復活契機

▲羣德淵(52 經濟·國際新報상임理事·東友會報편집위원장)=學術·體育·建設등에서 東國中興의 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이때, 分校인가는 모교발전을위한 또하나의 朗報다. 흔히들 東大는 「主人이 없는 학교」라고 말하고있는데, 이번기회에 財團·學校·同窓會가 三位一體가되어 民族私學으로 드날렸던 과거의 傳統이상으로 크게 빛내는 底力과 活力의 東國으로 승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자.

젊은敎授確保 時急

▲李根三(52 英文·西江大교수·劇作家)=언젠가 東國이 안고있는 가장큰 課題가 敎員의 확보라고 들었다. 外部에서 들기에도東國은 후계자양성에 동한히 해온 느낌이다. 지금 年齡層은 50代이상이 大部分이고, 30~40대는 小數에 불과, 앞으로 10년후면 世代交替가 불가피한 실정인데, 이의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大學은 그만큼 중한 사명과 理念에 비추어 短時日에 勝負를 거는 도박장이 아님을 명심할필요가 있다.

校地17萬여坪 買入 진행중

大學의人的·物的자원 效率的활용 계획

民族文化의 中心地로 개발

▲慶州分校의 新設意義=먼저 東國의 建學理念을 佛敎精神文化의 발상지인 慶州에 분교를 설치함으로써 이제 우리 대학은 內實을 기하면서 發展을 가속화하는 이른바 「東國跳躍時代」를 맞게 된것이다. 즉 大學의 人的·物的資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교 經營面에서도 크게기여할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東國의 各科別 平均 學生數는 29·8명으로 市內 綜合大學의 평균치인 39·3명에 훨씬 못미쳤으나 이번 慶州分校 新設과 二部大學 增員으로 이 숫자는 33·8명으로 크게 늘었다.

문교당국에서는 理化學工業이나 經商系列學科를 重點增員 新設認可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分校를 신청한많은 대학중 3개 대학만이 인가를 받았고 특히 우리만이 人文·社會系列學科를 인가받았다는 사실은 傳統精神文化 계승의 특성화 대학이라는强點과 전전한 연구 분위기가 어필되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分校를 慶州로 설정한 理由=慶州는 서울本校와 地理的으로 지나치게 멀어 學校經營面에서는 여러가지로 불리한점이 많다. 따라서 他大學 責任이 있는 것이다. 慶州分校를 통해 民族文化傳統을 재현, 精神文化와 科學文明을 주체적이고 조화있는 새로운 民族文化로 창조 발전시켜야 할 使命을 완수하고자 한다.

▲경주분교의 진척상황과 전망=慶州地域에는 大學이 없기 때문에 本校와 같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할것이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綜合計劃을 짜고 있는 중이다.

분교는 경주 롱학권內 39개 고등학교와 인근지역(포항·영덕·울진·청송등) 학생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마련해 주게되어 흡수, 인적 자원은 풍부하다.

77년도 경주시롱계에의하면 경주지역 총 1만2천7백59명 (롱학권 1만6백53명·인접 지역 2천1백6명)의 졸업생중 진학 희망자는 4천3백67명(3천7백49명·6백18명)이며, 예비고사 합격자는 2천5백59명 (2천3백21명·2백36명)

裵鍾根실장과의 一問一答



◇裵기획 실장

▲慶州分校의 新設意義=먼저 東國의 建學理念을 佛敎精神文化의 발상지인 경주에 심고 가꾸게 되었다는데 가장 큰 敎育的 意義가 있다.

또한 획기적으로 정원이 증가됨으로써 이제 우리 대학은 內實을 기하면서 發展을 가속화하는 이른바 「東國跳躍時代」를 맞게 된것이다. 즉 大學의 人的·物的資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학교 經營面에서도 크게기여할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分校를 신청한많은 대학중 3개 대학만이 인가를 받았고 특히 문교당국에서는 理化學工業이나 經商系列學科를 重點增員 新設認可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分校를 신청한많은 대학중 3개 대학만이 인가를 받았고 특히 우리만이 人文·社會系列學科를 인가받았다는 사실은 傳統精神文化 계승의 특성화 대학이라는强點과 전전한 연구 분위기가 어필되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分校를 慶州로 설정한 理由=慶州는 서울本校와 地理的으로 지나치게 멀어 學校經營面에서는 여러가지로 불리한점이 많다. 따라서 他大學 責任이 있는 것이다. 慶州分校를 통해 民族文化傳統을 재현, 精神文化와 科學文明을 주체적이고 조화있는 새로운 民族文化로 창조 발전시켜야 할 使命을 완수하고자 한다.

▲경주분교의 진척상황과 전망=慶州地域에는 大學이 없기 때문에 本校와 같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할것이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綜合計劃을 짜고 있는 중이다.

분교는 경주 롱학권內 39개 고등학교와 인근지역(포항·영덕·울진·청송등) 학생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마련해 주게되어 흡수, 인적 자원은 풍부하다.

77년도 경주시롱계에의하면 경주지역 총 1만2천7백59명 (롱학권 1만6백53명·인접 지역 2천1백6명)의 졸업생중 진학 희망자는 4천3백67명(3천7백49명·6백18명)이며, 예비고사 합격자는 2천5백59명 (2천3백21명·2백36명) 進學者數는 7백88명 (7백10명·78명)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흉보활동을 위해 실시되는 전국 순회강연은 慶州地域을 중심으로 전개하여 東國의 學風과 약진의 이미지부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分校의 建物은 慶州의 地域性과 本校의 社會的 使命에 부합되는 傳統的인 樣式(外部는 韓式, 內部는 洋式)으로 建立했으면 하는 욕심이다. 本校의 慶州分校는 명실공히 佛敎文化의 中心地를 뿌리박게 될것이다.

尹月下 理事長을 비롯한 財團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鄭總長의 노고에 감사한다.

本會 崔회장

閔·朴동문과午餐

本會 崔載九회장은 지난13일 南支部 光州에서 上京한 閔俊植(51經濟·全南大총장)、朴來春(50國文·農場경영) 동문의 예방을 받고 시내 H관에서 오찬을 나누면서 本部소식과 支部소식및 조직강화방안등에 관해의견을 교환했다.

丁一權의장 禮訪

在美 金·任동문

母國에 일시들른 美남가주 金基成(49정문·남가주韓人會長)、任春根(65經濟·부동산학교장)동문은 지난 19일 崔載九회장 안내로 丁一權국회의장을예방, 在美 韓人들의 현황과 國內外문제에 관해 환담을 나누었다. 한편 이자리에는本會의장 白永哲(61法·국회의장 보좌관)동문이배석, 한층 부드러운 분위기가 되었다.

訂正

本報 제29號 獎學金전달 3面 「經營科서 3명에게 各5만원씩 5만원씩 5만원、16기생은 5만원씩 5만원、김영수(경영4)군에게 15만원、허청규(경영3)군에게 5만원씩 지급한것이며, 이 금액은 경영과동창회(회장=趙熙榮)서 15만원、同1회 同期모임인 「3명에게 各5만원씩 5만원、16기생은 5만원씩 5만원、김영수(경영4)군에게 15만원、허청규(경영3)군에게 5만원씩 지급한것이며, 이 금액은 경영과동창회(회장=趙熙榮)서 (회장=金光英)에게 5만원、同1회 同期모임인 (대표=康聖寶)일동이 5만원씩 5만원을 각각 기탁한것임을 밝혀 訂正 補完합니다.

칼라사진의 선구
사진예술원
부설·P·A칼라 종합현상소
한국사진학원
종로2가 파고다 아케이드앞
TEL.(73) 3018 (74) 3018
동문 특별봉사

대소연회석·추차장 완비
부산회관
主 曺廷海 호수그릴 맞은편
(77)4100

前期入試 慶州大學만

모교 慶州大學이 前期入試校로 확정되고 自然系學科의 試驗科目中 수학(Ⅰ)이 수학(Ⅱ)로 바뀌는등 母校79학년도 入試要綱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지난23일(月) 열린 學處長회의에서는 慶北道內 각大學의 入試현황등 제반여건을 점토한끝에 慶州大學을 道內 名門私學으로 육성하고, 學科구성의 특성과 우수성을 최대한 살리기위해 分校入試시기를 前期로 확정한것이다.

한다. 적어도 大學의 캠퍼스만은 市井과는 다른 각도에서 建物하나하나, 나무와 풀한포기, 돌맹이하나에 이르기까지 조화와 生命力을 넣어야 할것이다.

東友提言

校名改定論

——「東國」을 「東慶」으로

宋堯仁 〈60英文·모교文理大 교수·本報編輯委員〉

바야흐로 校勢擴張과 이미지 刷新에 全力投球를 하고있는 母校는 文字그대로 轉換期에 처해있다。특히 慶州分校의 開校와 서울本校의 야간부 定員의 대폭增加에 따른 量的인 擴張은 七十三年 校史에 있어서 어느모로 보나 하나의 主要한 돌과구를 마련한 셈이 된다。이제 드디어 量的인 發展에 발맞추어 質的인 向上에도 모든 힘을 다하여야 될 處地에 놓이게 된것이다。

이와 같은 重要한 계기를 맞이하여 急變하는 「東國」의 이미지를 보다 더 참신한 것으로하기 위하여 筆者는 그동안 公席上에서 또는 私席上에서 主張해온 校名改定문제를 再論하고자하는 것이다。「東國」이란 名稱은 音聲學的으로 보나 意味論的으로 보나 視覺的으로 보나 實用面으로 보나 별로 매력이 없는것은 筆者뿐만 아니라 허다한 東國人들이 지적해오고 있는 것이다。紙面이 없으므로 일일히 지적할 수는 없어서 간단히 요약해보기로 한다。

첫째 「동국」의 「ㄱ」받침은 「大學校」를 「때학교」로 發音할것을 강요하고 있다。그리고 「국」의 母音 「우」는 高位後舌母音으로서 好音 「euphony」의 要件을 缺하고 있으며 우리말의 母音調和 패턴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다음으로 「東國」은 「中國」을 連想하기 쉽다。우연한 一致인지는 몰라도 「國」字를 校名에 使用하고 있는 소위 名門 私立大가 國內에 단한곳이라도 있는가 따져볼 일이다。적어도 大學校의 校名에 관한限 「國」字는 發展과는 無關한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

다음으로 보아서도 「東國」의 實用面으로 보아서도 「東國」은 不便은 한두가지가 아니다。우선 「建國」「檀國」과의 혼동을 으뜸으로 꼽아야할 것이다。筆者는 母校에 十五年을 勤續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親友와 各級同門들이 소위 「三國大學」中 어느 大學에서 강의하고 있는지 모르거나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것이 實情이다。

여기에다 우편물 配達의 혼동(특히 외국서 오는 學術자료의 경우가 심하다)과 택시운전사들의 혼동등은 겪어보지않은 同門들이 거의 없을것으로 믿는다。

校名을 改定하되 무엇으로 改稱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筆者의 見解로는 慶州分校의 發足은 東大發展에 至大한 意義를 갖는다고보며 이러한 계기야말로 校名改稱에 「慶州」의 「慶」字를택하여 「東慶大學校」로 改名할 명분을 제공한다고 본다。

「慶」字는 前述한 「國」字의 결함을 거의다 해소시킬뿐만아니라 慶州市民을 포함한 地方民에 대한 「東大」의 誠意와 一致感을 상징한다고 본다。



◇宋 同 門

그러나 「慶州大學」은 잠정적인 便宜는 보장될수 있지만 얼마뒤에 닥칠學校의 綜合大的인 팽창을 고려한다면 문제가생긴다。「慶州大學」으로만 영구히 블릴것인가? 그렇다면 규모가 서울을 능가하는경우 宗國 또는 財團에서 경영하는 別途의 綜合大學校로의 變質의 可能性은 없겠는가?

「東慶大學校」로 改名한다면 通常名稱으로 서울本校는 「東慶大學校 서울캠퍼스」가되고 慶州分校는 「東慶大學校 慶州캠퍼스」로되며 本校니 分校니 하는 차별이 없어지고 學校의 이미지에도 보탬이 될것을 確信한다。

물론 「東京大學」과의 혼동을 論할수없겠지만 그것은 「도쿄 대학」을 「동경대학」으로 발음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미 현재 使用중인 「東大」란 略稱은 그러한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것이다。日人들이 「도쿄이大學」으로 發音할 것이니까 이문제는 別로신경을일이 못된다고 본다。

이밖에도 「慶」字의 長點은 여러가지側面에서 論할수가 있으나 紙面때문에 생략하고、國內外에활약중인 同門들의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는바이다。

「장미」를 무엇이라고 부르든고 향내에는 변함이 없다」는 세익스피어의 말에도 一理는 있지만 近代 大衆文化의 추세로보아서 「미디엄이 메시지가 된다」는 마샬 맥루한의 말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것이다。「東慶大學校」라는 명칭은 이미 상당한 校內外 人士들의 호응을불러일으키고 있는 現時點에서 同門들의 적극적인 反應을 期待하며 이글을 맺는다。

同門探訪

제10회 大韓民國文化藝術賞 수상자

俞 賢 穆 동문



『受賞의 榮光은 나를키워준 母校에 돌리고 싶어요。이번 수상이 學生들을 사기진작에도 움이되었으면 좋겠고요』라고第10回 大韓民國文化藝術賞(大統領賞)은 文化公報部가 文化藝術발전에 끼친 功績을 各分野別로 심사한것으로 演藝部門에서 俞同門이 내정된것。그것도演劇·무용등 많은 부문을 제치고 映畵部門으로는8년만의 慶事이자 영화감독으로서는 最初의 일이어서 더욱 빛이나는 것이다。」

長期間 韓國映畵界의育成發展에 끼친 영향과珠玉같은 藝術作品을 내놓은 功勞를 높이 評價받게된 것이 이번에 受賞을 하게된 契機。

俞同門이 映畵界에 入門한 것은 1950년후반 門部를 卒業한 직후로서 근 30년간을 영화에 投身해온 셈이다。

60年代까지의 初期作品과 의욕도 뛰어난 편인데 이러한 작품들이 산영화에 대한 施策이現在 改善中임은 그나마다행스런 現象이란다。

55년에 「交叉路」로 첫 獨立作品을 낸 이후 지금까지 俞同門의 作品만도 40여편、文化·敎育映畵까지 합하면 해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作品을 발표했다。

60年代까지의 初期作品 인 俞同門은 大鐘賞5回를 포함한 60餘回의 監督賞·作品賞을 휩쓴 韓國映畵界의 堅人車이기도 하다。現在 제작중인 작품으로는 「엣날 옛적에훠이훠이」·「다함께 부르고싶은 노래」가있다。

모교 講義와 제작활동、映畵界 業務등으로 동분서주하는 俞同門은 朴근子(47·前女流畵家會長)女史와 마포구현석동70번지에서 살고있다。俞同門의 사무실은 局번3가 51-7 전화 ㉓5292、㉖8720「유프로덕션」。

俞賢穆·金東文 수상자 축하연

本會에서는 지난 9월 25일 정오 市內 대림정에서 宋赫(59國文·前 모교敎養學部교수) 동문을 有司로 이날 모임에서는 제30회 편집계획등을 논의한 후 新任편집위원으로 宋堯仁(60英文·모교文理大 교수)、朴昌魯(66行政·法政大교수) 동문을선출、會長團의 裁可를 받기로 했다。

이번 편집위원선임은지난9월 作故한 張龍(前 漢陽大교수) 동문과 一身上의 事由로 同職을 사퇴한 李慶純(64法·한일방직공무부次長) 동문의후임을 보선한 것이다。

任期1년의 나머지 한편 편집위원들은 會長團에 再信任을 받아 再任命되었다。

◇편집위원명단은 다음과같다。

▲위원장 琴德淵(52經濟·國際新報상임理事)
▲李丙疇(51國文·모교文理大교수)
▲崔致根(52國文·한국연합광고 常務理事)
▲崔敦福(56國文·有元建設전무이사)
▲鄭世鉉(57史學·漱明女大교수)
▲宋 赫(59國文·모교敎養學部교수)
▲宋堯仁(60英文·모교文理大교수)
▲林德圭(60法學·英文월간「外交」발행인)
▲申璣均(61國文·合同通信문화부장)
▲朴昌魯(66行政·法政大교수)

本會 事務局 移轉안내

모교學生會館 1층으로

本會사무국이 오는11月5日 학생회관1층 學生課옆으로 移轉하게 되었읍니다。同門여러분께서는 사무국을 찾기쉬운 學生會館1층으로도 배정받아 移轉하게되었아오니 앞으로도 同門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記

一、移轉日時 一九七八年十一月五日(日)
一、移轉場所 모교學生會館 1층
(서울中區筆洞3街26)
※電話番號는 종전과 같이 ㉓8568(直通)과 ㉗8131~9(交) 그대로 사용합니다。

1978年10月31日

東國大學校同窓會 會長 白

斗山·東國·東亞·高麗·延世·梨花·中央·서울·成均館·漢陽·建國·서강·경희·한양·이화·숙명·숙대·홍익·국민·덕성·동덕·성신·세종·명지·상명·광운·단국·국학·한국외국어·한성·서울시립·인하·아주·가톨릭·감리·한신·장로·협성·총신·침례·성결·한영·서울기독·대신·한일장신·서울신학·한국신학·감신·기독교·한남·배재·대전·목원·우송·한밭·충남·청주·충북·공주·영남·대구·계명·경북·부산·동아·동의·경성·부경·울산·제주·한라·전남·조선·광주·전북·우석·원광·이리·군산·전주·예수·호남·한일장신·서울신학·한국신학·감신·기독교·한남·배재·대전·목원·우송·한밭·충남·청주·충북·공주·영남·대구·계명·경북·부산·동아·동의·경성·부경·울산·제주·한라·전남·조선·광주·전북·우석·원광·이리·군산·전주·예수·호남

明星女子中學校

校長 李光載

東國大附屬中學校

校長 金寬性

京南商業專修學校

校長 朴仁榮

眞善女子高等學校

校長 朴泰華

景城高等學校

校長 金炳三

松谷女子中高等學校

校長 王豹淳

祥明女子高等學校

校長 裵炫宗

誠信女子高等學校

校長 李鍾根

大新高等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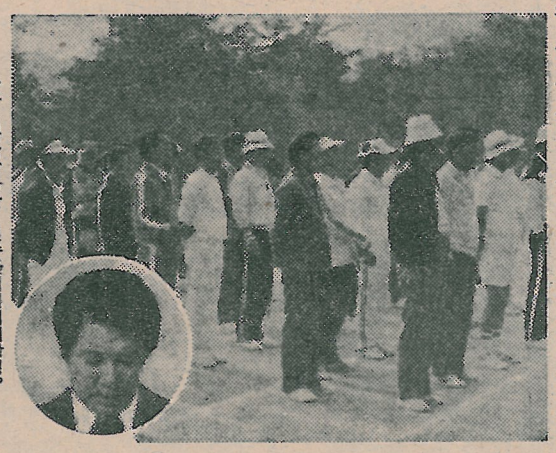
校長 金漢壽

第4回 會長純銀盃쟁탈 테니스大會성료

例年보다 實力향상 총27개팀參加

優勝 최요환·金振璜·李炳天 (B조) 金剣 (A조) 田泳和·趙正基 (C조)

제4회 同窓會長純銀盃쟁탈 東國테니스大會가 지난 22일(日) 柳周鎣동창회부회장, 宋基成동국테니스회장과 任員및 선수 1백여명이 참석, 盛況을 이룬가운데 모교敎職員·學訓團테니스코트에서 열려 崔요煥·金剣(A조)팀등이 영예의 우승트로피를 차지했다。또한 B조는 李炳天·金振璜팀、C조는 田泳和·趙正基팀이 各各 우승을 차지했다。



◇유니폼을착용한 선수들의개회식광경。(원내는 大會辭를하는 柳周鎣부회장)

이날 尹天泳本會사무국장은 各組別우승컵반환에 이어 柳周鎣체육담당부회장은 大會辭를 통해『會員相互間에서로 競爭하고 대결하지만 서로 발전하고 友誼를 다지는 氣風을 세워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宋基成 테니스회장은 각組別 우승팀이 出戰한가운데 各組別 총27개팀이 참석, 예년보다 수준높은 경기와 매너경기에 들어가 豫選은 리그戰, 準決부터는 토너먼트로 승부를 가렸다。

이날 組編成은 A조는신청대로, B·C조는 個人別 추첨에의해 결정했다。

도『4회째를 맞아 技賞·敢鬪賞을 없애고 대신 장려상으로 代置, 그基準도 組편성에 관계없이 準決進出·高齡및先輩層·無入賞경력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 시상했다。

또한 이번 大會를 빛내도『4회째를 맞아 예년보다 수준높은 경기와 매너로서 東國人의 긍지를 갖자』고 말했다。

이어 李昌憶(52政)동문의 競技上 주의사항, 3회대회 A조 우승자인 柳豐雲(68行政)동문의 선수宣誓가 있은다음, A조8·B조9·C조10개팀등 총27개팀이 出戰한가운데 各組別 경기에 들어가 豫選은 리그戰, 準決부터는 토너먼트로 승부를 가렸다。

이날 組編成은 A조는신청대로, B·C조는 個人別 추첨에의해 결정했다。

東國테니스會 任員회의

부회장등 일부任員개선

東國테니스會 任員會議가 지난 22일 오후7시 市內앰배써더앞 韓萬屋에서 열려 제4회동창회장배 테니스大會종합평가보고와 任員개선이 있었다。

이날 총회는 新任회장에 蔡道秉(63經·삼화체육사代表)동문을 선출한뒤 부회장등의 임원은 會長에게 選任權을 위임했으며 이어경과보고및 사업계획등을 토의하고 宴會로서 회원간의 우의를 돈독히 다졌다。

또한 海外체류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임원등을 交替、一部를補選했다。

▲부회장=尹鎭安(58經濟·産經會計法人대표회계사)朴忠一(60法·信興印刷사장)朴茂雄(63政治·國際問題硏)

▲총무이사=李茂雄(63政治·國際問題硏)

▲재무이사=吳正權(58經濟·모교敎務課長)

▲경기이사=李昌憶(52政治·모교체육지도부장)。

南加州서도 50만원 전달

體育部 발전誠金으로

美남가주東友會 金基成(49會 崔載九회장과 모교 學生처長、李昌憶체육지도부장등 전문·南加州韓人會長)、任香根(65經濟·울립관부동산 학교장) 동문이 지난 11일 모교를 방문코 鄭在覺총장에게 남가주 同門들이 十분一飯한 體育發展성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10시 총장실에서 가진 誠金전달식에는 本會 朴東仁이사도 참석했다。

美동부지역(뉴욕)東友會서

奬學金 40만원 寄託

"野球部등 支援 뜻비쳐"

美東部지역 (뉴욕) 東友會는 지난5일 張振建(50史·뉴욕우래옥社長) 회장등 회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배 육성 장학기금 40만원(8백달러)을 崔載九회장앞으로 人便을 통해 보내왔다。

異域萬里에서 우수한 후배들을 위해 每年 장학금을 지급해온 同會는 張회장체제의 任員개선과 함께『앞으로도 계속 장학금을 송금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특히 모교 野球部활약에 지대한관심을표명해왔다。

本會는 이번에 도착된 同장학금을 個別지급 하지않고 지난 76년부터 전개되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개교70주년기념 장학기금으로 全額을 적립, 에 치시켰다。

南加州서도 50만원 전달

體育部 발전誠金으로

美남가주東友會 金基成(49會 崔載九회장과 모교 學生처長、李昌憶체육지도부장등 전문·南加州韓人會長)、任香根(65經濟·울립관부동산 학교장) 동문이 지난 11일 모교를 방문코 鄭在覺총장에게 남가주 同門들이 十분一飯한 體育發展성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10시 총장실에서 가진 誠金전달식에는 本會 朴東仁이사도 참석했다。

牙山郡 체육대회 盛況

任員改選 회장에 蔡道秉동문

牙山郡東友會주최 제11회 郡內직장대항 친선배구대회 및 제4회 테니스大會가 지난 22일(日) 오전10시부터 同門30여명과 郡守·경찰서장·農協조합장·교육장·문화원장등 郡內 各기관장및 선수·주민등 3백여명이참가한가운데 온양 온천국민학교에서 성대하게 베풀어졌다。

同門相互間의 친선도모는 물론 地域社會발전에 이바지하고자 牙山郡東友會가매년 年例행사로 개최해온同大會는 郡民들의 大잔치로서 朴基瑞감사장의 사회로 前年度우승팀인 牙山郡農의 우승기반환에 이어 崔明烈회장의 대회사、관내기관장의 祝辭가 있었다。

이날 폐회식에는 역대회장인 李德潤·朴之溪·李恒敏등문등이 직접시상、한층 화기애애한 大會가 되었으며 本會 朴東仁이사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同大會를 격려했다。

한편 牙山郡東友會(회장=崔明烈) 78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22일(日) 郡內친선체육대회가 끝난뒤 곧바로 C음식점에서 열려 同대회에 이어 一部임원을 보선했다。

이날 제4회大會를 마친뒤 곧바로 열린 임원회의에서는『이번 大會가 自體的운영치고는 원만하게 치러졌다。다만 校內와 校外 2, 30代와 40代間 組편성을 다음大會부터 적극권장하고 組편성자는 준비위원회에서 추천등의 방법으로 편성해주며 기타사항은 會長團에서 보완한다』는 방침을 결의했다。

論山郡東友會 창립

회원30여명 회장에 李宗九동문

忠南 論山地區 東國人들이 한자리에 모인 論山郡東友會가 지난29일(日) 오전10시 논산읍내 거복다방에서 열려 초대회장에 李宗九(62法·大建高)동문을 선출했다。

10여명의 동문이 참가、창립총회를 가진 同會는 이날 회원상호간 친목강화를 위해 年4回 정기모임을갖는한편、각종 경조사에 술선할 것등을 결의했으며、이어 오는 11月12日 현판식을 갖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회장단에서 현판장소를물색토록 위임했다。

현재 논산지역 동문은30여명이며 회장=林德圭(60法·月刊英文「外交」발행인)

▲부회장=李宗九(62法·大建高)

▲간사=李一郎(69史·상업)、林大喆(71法·화생당약방代表)

▲재무=徐平錫(71經營·연무일반버스정류장代表)

安昌應(71食工·한일전기論山대리점)

李昇雨박사 歡送宴

農學科주최 幸運의열쇠증정

모교 農林大교수 李昇雨박사의 停年退任 歡送宴이 農學科東友會(회장=柳周鎣)주최로 지난17일 오후7시 市內 H육에서 열려 제자들의 정성이 담긴 幸運의열쇠와 감사패를 전달、그간의 노고를 위로했다。

모교 金熙泰、金熙坤교수와 同會 柳회장、黃應秀·鄭建永부회장을 비롯、회원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은 平素 부철한 교육이념으로 30여년간 후진양성에 크게 기여한 李박사의 功德을 기린뒤 師弟間에 두터운情愛를나누었다。

會長團 連任결의

會長團회의 오는11月10日개최

國會定總 新入會員 환영도

國會東友會 제3회정기총회가 지난12일(木) 오후7시 을지로4가 우래옥에서 金東英會長、白永哲의장도참석한 가운데 열려 會長團連任을 결의했다。

李鎭相(64英文)감사장사회로열린 이날 총회는金會長의人事、丁禮植(70行政)부회장의 경과보고에이어 새로入會한 金富榮(64政·도서관국제교환과)、金振泰(75經·도서관 國際交換課)동문등 신입회원人事가 있었다。

이날 총회는 또한 10代議員總選관계로 會長團을연임키기로 결의하는 한편 會員相互間의 친목과 相扶相助를 더욱 돈독히 할것도 다짐했다。

61年 經濟學科

12月1日정기총회

61年經濟學科(회장=閔奭植)78年정기총회가 12월1일오후6시30분풍전호텔2층 총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총회의석상에서는 경과보고와 신년도 사업계획논의에 이어 送年宴會잔치를 겸해 會員間의 유대강화를 도모하게 된다。

KOTRA東友會 창립

회장에 金萬律동문

大韓貿易振興公社東友會가 지난 1월 발기결 창립총회를 가진뒤 隔月로 모임을열어 會員間의 친선을도모해오고 있다。

同會는 지난6月22日 長승진의 金萬律동문、과장승진 徐進동문에대한 승진축하회를 개최한데 이어、지난9月6日에는 市內明洞「동해부니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조직강화및 相扶相助등 친선도모방안을 논의했다。

회원이 15명(해외근무4명포함)인 同會는 또한 隔月會費 2천원、會員중 海外근무발령시 5만원이상 특별기금찬조등을 골자로 한 會報제작및 발송등 원활한 동창회운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되겠다는 同會의 취지에 따라 本會 柳周鎣부회장과 東國테니스회 宋基成회장을비롯、錢昌源부회장 趙旺基감사 吳正權총무이사 朴忠一재무이사 陳宗龜섭외이사 李根雨간사장 白禹鉉간사장등이 各各 金一封을 喜捨했으며、本會에서는 기념타올 1백매를 기증했다。

※各組別入賞者명단

◇A組

▲우승=崔요煥·金劍組▲준우승=白禹鉉·서용진組▲장려상=金永柱(52經)、李昌憶(52政治)

◇B組

▲우승=李炳天·金振璜組▲준우승=禹昌昱·尹鎭化組▲장려상=具滋秀(62政治)朴秀蒼(72法學)

◇C組

▲우승=田泳和·趙正基組▲준우승=金鍾浩·오희봉組▲장려상=吳正權(57經濟)陳宗龜(62經濟)

江南지부 創總

會長에 吳昌均동문

江南地域 東國人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江南지역東友會 창립총회가 지난 29일(日) 정오 同관내 현인능에서 50여명의동문이참석한 가운데열렸다。

이날 嚴泰根(63佛)동문의 사회로열린 창립총회는 앞으로 회원들의 상호교류를 통해 東國人의 긍지를 드높이고 모교발전에 이바지하기로 하는등 사업계획을 논의한뒤, 會長에 吳昌均(61史)동문을 선출하고、연회로서 선후배간의 우의를 다졌다。

▲부회장=柳基明(67經營·슈고상사 사장)、李鍾善(70經營·서울旅客자동차사장)

▲간사장=嚴泰根(63佛·대림화학 전무)。

在職同門會 장학금

2명에게 5만원씩

모교在職同門會(회장=崔世和)에서는1978년도2학기 同會 奬學金으로 李永壽(史學·3)朱明哲(印哲·3)군에게 各5만원씩을 지급했다。

朴貴大동문

農硏에 10만원喜捨

朴貴大(61農·고려제이드社長)동문이 지난달 30일 모교 在學生씨클인 農漁村硏究部의「農樂」발전에 써달라고 격려금 10만원을회사했다。

釜山지구化學科

조직擴大등논의

釜山地區 化學科 同窓會(회장=성용길) 月例會가 지난10月25日 고려호텔 커피숍에서 열려 회원상호친목을 도모했다。

한국화약申鉉得씨

本會에2만원희사

한국화약 經理部차장으로 있는 申鉉得氏가 本會발전에 써달라고 성금 2만원을 보내왔다。

蠶室 야유회

여주 신륵사등지서

蠶室지역東友會(회장=黃天午)가주동한 친선야유회가 지난 15일(日) 黃회장을비롯 50여명이 가을이 한가운데 여주 英陵과 신륵寺에서 열렸다。

勤勞奬學舍 선후배모임

모교잔디밭서, 基金마련등논의

근로장학사 동우회(회장=李鍾燦)의정기 모임이 지난달 29일(金) 오후7시 會員20여명과 在學生 舍生등 약30명이 참석한가운데 모교정중앙 잔디밭에서 선후배간에 화기애애하게열렸다。

同會의이번 정기모임에서는근로장학사업을 위한 기금마련과 舍生의 근로정신함양등 근로장학사 운영전반에 걸친 토의를 거친다음 조촐한 가든파티를 즐겼다。

여의도의 國會門은 나를 반겨줄것인가. 10代國會議員 選擧日도 앞으로 한달. 이번 선거에도 20여명의 東國人이 「選擧레이스」에 參加했다. 公薦으로부터 當選까지의 「苦」의 行進, 냉엄한 國民의 判定, 살업음같은 政界의 悲情.

총 77개 선거구 1백44席은 몇명의 東國人을 主人으로 맞을 것인가. 9代國會에는 지역구에서 5명(共和1、新民4)의 東國人이 進出했다. 意志의 東國人은 勝利할수 있을까. 이미 공천자를 발표한 共和、공천작업이 完了되어가는 新民、그리고 무소속에서 東國의 勇士들은 뛰고있다.

金뺏지의 向方을 쫓는 「레이스」에서 東國人은 勝利의 면류관을 차지할 것인가. 몇이나 차지할 것인가. 여기 本會에 알려온 그 參戰同門들의 片貌를 살펴본다.

◇共和黨

▲崔載九 (52國文)

現국회의원으로 2選인 본회의 동문회장을 맡아오고있다. 72년부터 지난 10년동안 한결같이 同門社會에 너무나 잘 알려진 人物이다.

지난 9代때 共和黨 공천과정에서 이번 관철동 巨濟 모옥에 각별히 心血을 쏟아 당선의 기염을 토했다. 崔동문은 全國敎會長과 共和黨 중앙상무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大韓體育會 부회장, 韓國아마튜어레슬링協會 부회장, 大韓建設協會 理事, 韓國建設業協同組合 이사장 등을 맡아 폭넓은 社會活動을 하고있다.

▲金相碩 (70行碩)

金동문은 共和黨 사무국 요원출신인 女出戰한 지난 9月 同黨 조직책임을 맡아 정식으로 公薦을 받은 宣寧·咸安·陜川지구당 위원장 및 경남도당 부위원장을 거쳐 62년 63년 韓美 공동으로 主催한 제21回 전국 단장으로 본부팀을 이끌고 參加하여 團體優勝을 차지한 바 있으며 현재 大韓體育會 부회장 등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崔載九 등문



▲金相碩 등문



◇共和黨

▲崔載九 (52國文)

現국회의원으로 2選인 본회의 동문회장을 맡아오고있다. 72년부터 지난 10년동안 한결같이 同門社會에 너무나 잘 알려진 人物이다.

지난 9代때 共和黨 공천과정에서 이번 관철동 巨濟 모옥에 각별히 心血을 쏟아 당선의 기염을 토했다. 崔동문은 全國敎會長과 共和黨 중앙상무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大韓體育會 부회장, 韓國아마튜어레슬링協會 부회장, 韓國建設業協同組合 이사장 등을 맡아 폭넓은 社會活動을 하고있다.

▲金相碩 (70行碩)

金동문은 共和黨 사무국 요원출신인 女出戰한 지난 9月 同黨 조직책임을 맡아 정식으로 公薦을 받은 宣寧·咸安·陜川지구당 위원장 및 경남도당 부위원장을 거쳐 62년 63년 韓美 공동으로 主催한 제21回 전국 단장으로 본부팀을 이끌고 參加하여 團體優勝을 차지한 바 있으며 현재 大韓體育會 부회장, 韓國아마튜어레슬링協會 부회장, 韓國建設業協同組合 이사장 등을 맡아 폭넓은 社會活動을 하고있다.

▲崔載九 등문

▲金相碩 등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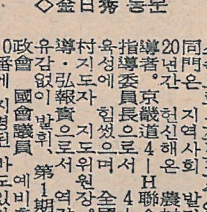
▲鄭奎完 등문



▲李肯珪 등문



▲金日秀 등문



▲朴東仁 (65法學)

弱冠29세로 7代때 국회의원을 꿈꾸던 朴동문은 15代때 당선, 政治學을 전공한 同門의 촉망받는 政治人으로 現국회의원 同門은 野黨의 重鎭으로 二選인 崔동문이 기대된다.

▲崔炯佑 (63政治)

崔동문은 國家發展에 보다 많은 공헌이 기대된다.

▲鄭奎完 (65經濟)

新民黨 中央黨務委員 職을 맡아 활동중 鄕里인 慶北 金泉에서 地域 공천을 받아 現在 활약하고 있다.

▲金殷夏 (52政治)

現국회의원으로 仁川에서 4選의 관록을 세운 金同門은 政界에 널리 알려져 있다.

金同門은 全國學聯 會長, 仁川市議會 議長, 仁川體育會 會長을 지내는 등 仁川市 體育會 發展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으며 현재 仁川市 體育會 名譽會長, 仁川市 體育會 會長, 仁川市 體育會 會長, 仁川市 體育會

과 質的인 向上을 보이고 있다。아지역의 傳統文化계승과 자라나는 學生들의정서순화및 일반음성도야등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힘쓰자』고 말했다。

제1회 讀書大賞著作賞수상 「近世中國民族운동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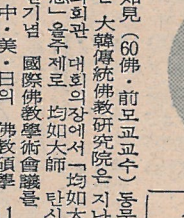
鄭 世 鉉
<수교大女明淑>

鄭世鉉(57史學·淑明女大교수)동문이 저서 近世中國民族運動史(一志社刊)로 月刊讀書에서 시상하는 제1회 讀書大賞저작상부문을 31일 수상했다。

鄭同門의 力作인 同冊子는 中國의 近代化과정을 孫文을 主役으로한 反淸革命과 會黨과의 關係발전을 主內容으로 엮었는데 中國近代史연구의 勞作으로 學界의 주목을 끌었었다。

同冊은 政治·軍事 兩面에서 孫文개인에관한 고찰과 관계논문을 수록、反淸革命에 있어서 그 근거와 발전과정을 會黨과 결부시켜 해석하고있다。鄭同門은 淑明女大도서관장、淑大新報주간등을 역임

國際佛教학술회의 「均如大師와 華嚴思想」주제로



金 知 見
<佛教傳統硏究院長·韓大교수>

金知見(60佛·前보교교수)동문이원장으로있는 大韓傳統佛教硏究院은 지난28일 世宗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均如大師와 華嚴思想」을주제로 均如大師 탄신 1105주년기념 國際佛教學術會議를 열었다。

韓·中·美·日의 佛教碩學 11명과 국내학자 20여명이참석、주제발표와 討論을 통해 「民族團合의 근본이념으로서 均如大師의 南北화엄宗總會및 義路정립 足跡에대한 관찰로 당면한 국안보통일정책 바탕으로서의 개발함은 물론、國際交流를 통한 佛教의 올바른 이해와 보급에 한층정진하자」고 강조했다。

高麗大藏經초조본 발견

千 惠 鳳
(48전문·成均館大 교수)동문이

국내에 거의 現存하지않은것으로 알려진 高麗大藏經初조本을 무려59종73권이나 발견해 놓았다。

金義煥도 江華島條約과 釜山開港을 중심으로 하여 총5백면에 걸친 『朝鮮對日交涉史硏究』를 通文館發行으로 출판했거니와 이와는 따로이 또 발표된 「開港後釜山新敎育의 展開相」(港都釜山6)과 「朝鮮을 둘러싼 近代露日關係硏究11-3)등은 江華島條約과 釜山開港등을 中心으로 해서 일기시작한 근대화과정에 있어서의 國內文化面의 新機運과 國際政治面의 격동을 각각 다루어놓은 논문이다。그는 또 「丁未年朝鮮軍隊解散과 反日義兵(東國史學·10合輯號)등 一聯의 義兵硏究에서 李恒老의 學脈을 이은 華西學派의 硏究에 있어서 이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적지않은 업적과 더불어 도움을 주고있다。그의 이러한 연구를 著書로 정리하여 최근 출간된 것이 「抗日學生民族運動史硏究」(一志社·1976)로서 學界에 큰 裨益을 던져준바있다。

한편 5·4運動을 중심한 中國近代民族運動史硏究서부터 출발한 鄭世鉉은 원래 中國近代史에 대한 새로운 硏究를 시도한바 있다。

한편 5·4運動을 중심한 中國近代民族運動史硏究서부터 출발한 鄭世鉉은 원래 中國近代史에 대한 새로운 硏究를 시도한바 있다。

結 婚

▲申亮永(73法·라미화장품釜山支社)‖9월9일 오후2시 신혼예식장 신관2층에서 本人화촉。

▲李榮根(78林·事業)、金英子(75英文·모교圖書館)‖9월24일 정오 모교 吳國根(英文科)교수主禮로 水原문화예식장에서 화촉。

▲魚濱浩(78林學·한국海外開發公社)‖10월7일 오후2시 수도禮式場에서 本人화촉。

▲朴起鍾(76經濟·貯蓄추진중앙위원회)‖9월23일 오전11시 아스토리아호텔 禮式部에서 本人화촉。

▲金寬性(48헤전·東大附中교장)‖10월14일오후2시 高麗예식장에서 長男결혼。

▲李準雨(72政外·대한해운공사)‖10월12일 正午 타워호텔서 本人화촉。

▲柳尙坤(74政外·한양化學)‖10월29일 11시 앰배서더호텔서 本人화촉。

▲申在翼(69經·한국콘트롤데이타)‖11월12일정오 로얄호텔2층에서 本人화촉。

▲許天澤(61英文·모교英文科교수)‖10월9일정오 로얄호텔서 동생 喜澤군결혼。

訃 音

▲辛澤祥(모교學籍課長)‖10월15일 모친別世。

▲宋鍾辰(76經碩·법무부矯政局長겸大檢검사)‖10월24일 마포구서교동 自宅서母親별세。

▲閔宇庚(59經·大地合同대표會計士·모교經商大상사)‖성동구 능동224~44호자택서 심장마비로별세。

▲朴完一(61佛·서울市불교신도회장)‖전남광산군송정읍소천리 自宅서 父親별세。

其他近況

▲徐京保(50佛·佛敎大교수)‖31일경기도파주군적성면갈악산紺岳寺에서열린 6·25전몰용사 추모의 忠魂祠낙성및 慰靈法會에참석、「忠魂과 安保」라는주제로 說法을가졌다。

▲김성배(51國文·모교사범대학장)‖한국국어교육학회 회장인 길동문은지난21일 同학회 창립15주년기념 제62차학술강연회에서 「국어교육과 국어순화」라는 논제로 주제발표。사범대 101강의실에서 열린 同학회학술강연회에는 白鐵씨등 2백여명의 관계학자들이 참석했었다。

▲林承宰(71商行)‖江南경찰서 교통주임으로 근무중 交通事故로 6個月間 병원생활끝에 퇴원、현재 同署 民願안내실 근무중。

論著를 中心으로 整理해본 — 東國의傳統

〈19〉

學史

近世韓國史 연구등 本格化

申國柱 「近代朝鮮外交史연구」로 學界注目 끌어

「中國近代民族運動史연구」로 健在 과시

鄭世鉉

昨今에 와서 韓國의 近代化運動과 더불어 韓國史에 있어서도 近代化問題에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開港前後부터 그 萌芽를 보이기 시작한 근대화의 과정과 日帝의 侵略내지 統治에대한 연구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거니와 이 분야에는 앞서 지적한 金敬泰·金昌洙외에도 申國柱·鄭世鉉등이 활발한 硏究成果를 發表하고 있다。

申國柱는 日本 有信堂에서 출판된 총4백면에 걸친 그의 著書 『近代朝鮮外交史硏究』가운데서 종전의 학설에 많은 반성을 加했었다。8·15前에 日本學者 田保橋潔등의 이 분야에 대한 著述이 없었던것은 아니지만 이번 「日本과 韓國이 眞實로 친선을 도모키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近代朝鮮外交史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朝鮮外交史의 연구는 外交機密에 抵觸되는 것을 이유로해서 終戰(8·15)前까지는 거의 금지되어 있었다。本書는 處女地에 버로소 손을 댄 近代朝鮮外交史의 본격적인 硏究書다」라고 소개된 그의 저서는 때를 같이해서 갇은 體裁로 우리말판이 서울 探求堂에서 간행되었다。그는 그의 論著가운데서 몇가지 注目되는 것을 지적해보면 다음과같다。종래의 史家가 修信使의 意義에 대하여 善史라고 평가한데 대해서 論駁하되 修信使가 自己使命을 잊고 日本의 對韓政策에 휘말려드므로써 日本으로서는 豫想밖의 招待外交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한편 朝鮮側으로는 이 修信使의 그릇된 復命으로말미암아 對日政策을 그르치게 해놓았으니 修信使의 역할이야말로 惡使라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또 壬午軍亂때의 火사건은 其實 日本公使 花房義質 자신에 의한 計策였음을 未發表資料에 의해서 立證했다。이밖에 金玉均등 日本公使 稱漆進一郎과 더불어 企圖했었던 정치적 陰謀事件인 甲申政變이 우리나라 근대화 내지 獨立運動의 선구적역할을 담당한 것이었다고 평가되어온데 대해서도 비판을 加하는 동시에 開化派 新日政權이 내세운 政綱은 아무런 信憑性도 없는 것이라는것 등、적지않은 문제점을 그의 著書가운데 제거해 놓았다。

金義煥도 江華島條約과 釜山開港을 중심으로 하여 총5백면에 걸친 『朝鮮對日交涉史硏究』를 通文館發行으로 출판했거니와 이와는 따로이 또 발표된 「開港後釜山新敎育의 展開相」(港都釜山6)과 「朝鮮을 둘러싼 近代露日關係硏究11-3)등은 江華島條約과 釜山開港등을 中心으로 해서 일기시작한 근대화과정에 있어서의 國內文化面의 新機運과 國際政治面의 격동을 각각 다루어놓은 논문이다。그는 또 「丁未年朝鮮軍隊解散과 反日義兵(東國史學·10合輯號)등 一聯의 義兵硏究에서 李恒老의 學脈을 이은 華西學派의 硏究에 있어서 이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적지않은 업적과 더불어 도움을 주고있다。그의 이러한 연구를 著書로 정리하여 최근 출간된 것이 「抗日學生民族運動史硏究」(一志社·1976)로서 學界에 큰 裨益을 던져준바있다。

한편 5·4運動을 중심한 中國近代民族運動史硏究서부터 출발한 鄭世鉉은 원래 中國近代史에 대한 새로운 硏究를 시도한바 있다。

한편 5·4運動을 중심한 中國近代民族運動史硏究서부터 출발한 鄭世鉉은 원래 中國近代史에 대한 새로운 硏究를 시도한바 있다。

그리고 그는 최근에와서 日帝의 亂前계에 대한 日韓의 國史硏究(등)를 비롯하여 善의 金虎門義擧에 대한考察、曺佐鎬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을발표하여 近代史後期에 대한 새로운 硏究를 시도한바 있다。

한편 5·4運動을 중심한 中國近代民族運動史硏究서부터 출발한 鄭世鉉은 원래 中國近代史에 대한 새로운 硏究를 시도한바 있다。

그리고 그는 최근에와서 日帝의 亂前계에 대한 日韓의 國史硏究(등)를 비롯하여 善의 金虎門義擧에 대한考察、曺佐鎬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을발표하여 近代史後期

東國의 脈搏이 世界속에 뛴다

未堂 세계一周記

徐廷柱 (35中·東·모교文理大學長)

〈上〉

未堂 徐廷柱 (詩人·母校 文理大學長) 동문은 지난해 11월26일부터 10월8일까지 280여일에 걸쳐 北南美, 오세아니아주, 유럽과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등 40여개국을 돌아보는 세계여행을 마쳤다. 귀국후 徐동문은 이번 여행을 통해 무한한 東大정신의 可能性을 보고 왔다고 말했다. 그가 가는곳마다 숱한 母校 同門들이 찾아와 흐뭇한 여정이었다고. 다음은 徐동문이 보고온 世界속의 東大와 同門들의 활약상을 인터뷰를 통해서 듣고, 다시 整理한 것이다. 〈編輯者註〉

이번 여행을 통해 큰 매력을 줄 정신적인 위력의 상징물이나 人生의 指標가 될만한 指導者를 찾지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간디, 링컨, 장개석 등 故人의 묘소를 찾아 경배했을뿐 世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왜소했다. 간디의 유품이 전시된 박물관에 들렸을때 피묻은 흰옷, 지팡이, 샌달, 벼루와 붓외엔 어떤 값나가는 유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새삼 故人의 위대한 정신세계를 보는 듯 했다. 하지만 지금의 世界는 그러한 賢人을 갖지 못하고 있다.

世界는 더럽고 누추하고 치사하기 짝이 없었다. 美國의 詩人 하먼敎授는 에드가 알렌 포우 時節만 해도 美國社會는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하는 서러움에 대한 자비심 눈물등이 중요시 되었지만 이제 기계문명에 인간이 지닌 서러움마저 없어지고 美國人은 급기야 失鄕民의 마음으로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고 술회했다. 또한 캐나다의 詩人 어빈 레이든은 기계문명의 영향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그들의 現實을 토로하고 나의 詩들은 그런 現代的 참화를 받지않은 別天地와 같다고 부러워 했다. 확실히 西洋은 위기의식을 스스로 느끼고있는듯했다.

東大精神의 可能性 到處에서 발견

"世界는 생각보다 왜소해"

태권도·文學·事業등 民間外交에 한몫

로마의 바티칸박물관, 런던의 대영박물관, 프랑스의 루블박물관등은 놀라운것이었다. 그러나 포만한 男女群像의 조각에서 육체적이며 발랄한육감적인 面을 느꼈으나고 려청자나 이조백자의선·형태·색채에서 느끼는숨통을트여주는 훤칠한것은 없었다. 이러저리 몰려다니다 네팔의 히말라야산맥에보여 自然에 파묻혀 있는 히피들은 西洋文化의 한계를 드러냈을 뿐이다.

서도 東國大學校의 선택된精神의 가능성을 도처에서 발견한것은 나를대로의 수확이다. 우리民族이 쓸데없는 자격지심이나 열등의식에서 헤어날 때라고 생각한다. 美國의 팽배한 물질주의와 日本의부앙난 듯한 높은 物價등의 기형적구조에 비추어볼때 韓國은 아직도精神과물질이균형을이루고있는 나라 世界 곳곳에서 예상보다 훨씬 왕성하게 活動하고 있었다. 西洋이 그 精神的 內容에 한계를 드러냈을 때, 그 국복방법은 오직 東洋思想이며, 그중에서도 佛敎의 世界는 人類의 精神世界를 淨化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地域的으로 東西洋의 思想을 흡수할 수 있는 韓國, 고중에서도 哲學的인 바탕에 東西精神을 理解하는 명당 東國大學校는 무한히 뻗어나갈 可能性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世界 도처에 進出해 있는 우리 母校의 同門들에게서 그 실증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었다.

母校同門들은 世界 곳곳에서 예상보다 훨씬 왕성하게 活動하고 있었다. 同門들은 태권도, 文學, 事業등으로 훌륭한 民間外交의 교를 펼치며, 한국의 얼, 또한 東國의 얼을 심어주고 있었다. 여행도중 수많은 同門들이 나를 찾아왔다. 캐나다에 들렸을때 어떤 同門은 100$을 넣은 봉투를 내밀면서 여행에 보태 써 달라고 했다. 그사람도 캐나다에 와서 체 자리도 잡지못한 처지임을 알고 異國의 하늘 밑에서 느끼는 東國의 연꽃내음에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世界 도처에서 東大精神은 살아 꿈틀거리며 낯선 나그네를 흐뭇하게 해주었다. 어떤 사람은 태권도 사범으로, 어떤 사람은 敎授로, 어떤 사람은 事業을 하며 한결같이 世界 속에서 韓國, 그중에서도 母校에 접맥된 훌륭한 민간외교의 몫을 담당하고 있었다.



◇伊太利 베니스에서의 筆者

東友會소식

두금회

◇62年國文科同期가 주축이뤄

每月 둘째金曜日에 모인다고하여 「두金會」. 同會의 출범은 3년전인 75년12월19일에있었다. 送年會를겸해서李喆鎬同門집에서 가진 모임은 相助會를 本格的으로 구성하기로 결의함으로서, 逆年이 되어있다. 特記할만한 사실은 20명의 小人員이지만 文壇에 데뷔 活動하는 멤버도 5명씩이나 된다.

初代 會長은 李喆鎬同門이 맡았고, 現 第2代 會長에는 李世茂同門이선임되었다.

대부분의 親睦會 相助會가 단순한 學窓校友라는 이유로 결성된다. 단순한 目的의식을 살리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구성된 박불관에 들렸을때 피묻은 흰옷, 지팡이, 샌달, 벼루와 붓외엔 어떤 값나가는 유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새삼 故人의 위대한 정신세계를 보는 듯 했다. 하지만 지금의 世界는 그러한 賢人을 갖지 못하고 있다.

世界는 더럽고 누추하고 치사하기 짝이 없었다. 美國의 詩人 하먼敎授는 에드가 알렌 포우 時節만 해도 美國社會는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하는 서러움에 대한 자비심 눈물등이 중요시 되었지만 이제 기계문명에 인간이 지닌 서러움마저 없어지고 美國人은 급기야 失鄕民의 마음으로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고 술회했다. 또한 캐나다의



◇李世茂 회장

성될때도있다. 「두금회」의 紀元은 겨우 3년전에서찾을 수 있지만 그 「胚」은 그活動이 찬란했던 學窓時節로 이어진다.

◇在學時라이벌劇 멤버들한자리에

두금회 會員들이 在學時에는 國文科學生만도 1백80여명. 古典現代文學, 語學, 文學전공에서 各自의 취향에따라 써클에 加入 學究熱이란 써클活動을통해 발산한것이 전부였을 정도였단다. 특히 「東國文學의 밤」行事는 매번 3천여內外 관중이 쇄도하여 大盛況을 이루곤 했었다고. 學會長 한 자리를 놓고서 競爭도치열하여 써클을 배경으로 펼친 「라이벌劇」은 아직도 기억에생생하다고 李喆鎬同門은 엣날을 더듬는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당시의 各써클의 핵심人物과 學會長 立候補者들이 「두금회」로 뭉친 것은 극히 異色的인것. 「在學時 善意의 라이벌은 卒業을하고 나면 밀착이한층 쉬운것같다」고 會長 李世茂同門은 말한다.

「當時는 學友들의 個別行動이 지금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편이였죠. 까만 작업복이 한창 유행했었고요.」 同門은 그이유로 잦은休講을 첫째로꼽는다. 그때에는 敎授의有名勢가 休講頻度에 비례했었다고 한다.

休講으로 시간이 남으면明洞의 「돌체」, 강의실이 아니면 早朝할인 극장을 찾아 마음맞는 學友들과 어울리곤 했었단다. 하지만 學業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은 當時의 新春文藝에入賞者의 2/5를 東大生이 차지했고 활발한 在學生 文人活動이 입증해주고있다.

◇隔月모임제

「두금회」는 작년까지만해도 月例會로 各會員의 집을 순회하면서 모였으나 금년들어서는 번잡한 私事를 갖안, 隔月로 모이고있다. 지금껏 거창한 事業은 없었으나 相助活動·母校 開校70주년 奬學事業등은 어느덧 놋지않게 활발한 活動이었다. 봄·가을에결처 가족을 동반하여 야유회로 회포를 함께 풀기도 한다. 定期總會는 「두금회」創立紀念日에열려任員改選및 事業決算과 計劃수립이 主要案件이된다.

◇基金조성구상중

「다음해부터는 事業基金을造成해야겠다」고 副會長 金乘萬同門은 말하고있다 대다수 會員이 敎職등에있어 푸짐한 財源의 확보는 곤란했으나 자기나름대로의 誠意덕택에 相助가 필요할때는 일사분란한 처리가 되어오고 있음은 자랑스럽단다. 그러나 不時의일이 생겼을때 신속히 움직일수있는 公式기금확보가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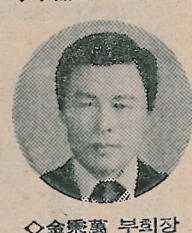
「좋은일이건 궂은일이건 會員이 찾아올때마다 온집이 가득찬 느낌이 갖게되죠.」崔元同門은 同窓愛는 金力·權力에 비교되지않는 妙力을 갖는다고 同會의 애착심을 표현한다.

「母校의 校勢는곧 日常生氣에 直結된다」고 異口同聲, 특히 敎職者들이 母校의 近況은 많단다. 「가까운 예로는 入學願書쓸때」라고 朴光鎬등등 敎職에 있는 同門들은 입을 모은다. 現任員陣은 다음과 같다.

▲會長=李世茂(동창실업㈜ 社長) ▲副會長=金乘萬(엔젤피아노 代表) ▲幹事=趙錫英(MBC아나운서) ▲李慶寬(영락中敎師)



◇李喆鎬 초대회장



◇金乘萬 부회장

◇두금회회원名單

姓名	職場및職位
李世茂	동창실업㈜ 社長
金乘萬	엔젤피아노사 代表
趙錫英	MBC아나운서
李慶寬	영락중학교 敎師
李喆鎬	유명한의원 院長
金鉉植	東亞製粉 代理店
金興一	東亞出版社 課長
朴孝來	濱榮中學校 敎師
李圭南	서울食品 資材課長
李寧植	서라벌高 敎師
印弘鉉	大서라벌中學校 敎師
林洛篤	東亞新聞社 廣告部長
趙商元	同德女高 敎師
崔裕澤	MBC보도제작부장
韓	東北高 敎師

單名자부납費會年

▲李敦熙 (69商學) =6,000원
▲李哲燮 (64政治) =5,000원
▲林大山 (〃) = 〃
▲李益淳 (71商學) =3,000원
▲高龍圭 (74政治) = 〃
▲朴性民 (66經營) = 〃
▲김건배 (〃) = 〃
▲李奭根 (65農學) = 〃
▲宋龍雲 (71行政) = 〃
▲柳相熙 (70法學) = 〃
▲崔明在 (61英文) = 〃
▲尹周演 (71法學) = 〃
▲金在壽 (38中佛) = 〃
▲金亨泰 (61史學) = 〃
▲金昌熙 (75行碩) = 〃
▲孫鐵洙(蒼順福)(49專門)= 〃
▲韓愁勳 (71行碩) = 〃
▲李儀相 (71行政) = 〃
▲魚演浩 (78林學) = 〃
▲宋雲浩 (76經院) = 〃
▲秋乭石 ( ) = 〃
▲吳春煥 ( ) = 〃
▲玄海宗 (63·法) = 〃
▲南時爀 (58政治) = 〃
▲尹敬守 (58英文) = 〃
▲채세희 ( ) = 〃
▲徐錫九 ( ) = 〃
▲朴壽哲 (57林學) = 〃
▲김영진 ( ) = 〃
▲吳東진 (57英文) = 〃
▲柳吉茂 (55政治) = 〃
▲우영철 ( ) = 〃
▲박상진 (77行院) = 〃
▲許順五 (69行院) = 〃
▲오종현 (77行院) = 〃

◇단체 납무분

□忠州支部 33,000원 (11명)

▲柳 浩 (48전문) =3,000
▲홍도식 (54영) = 〃
▲申大雨 (60英) = 〃
▲金補烈 (61경) = 〃
▲李鍾馨 (62法) = 〃
▲김돈석 (62法) = 〃
▲李炳煥 (63법) = 〃
▲강홍식 (법) = 〃
▲權寧徽 (62경) = 〃
▲洪起皓 (71경) = 〃
▲李殷哲 (71경행) = 〃

單名자부납費事理

▲金 愚 (51國文) =50,000원
▲金在國 (64法學) = 〃
▲張致健 (49專門) = 〃
▲柳吉茂 (55政治) = 〃
▲鄭麒永 (58經濟) = 〃
▲馬慶子 (53國文) =20,000원
▲權泰旭 (76行碩) = 〃
▲金銅原 (64經濟) = 〃
▲崔允植 (61總濟) = 〃
▲李光巖 (51英文) = 〃
▲俞賢穆 (49專門) = 〃
▲鄭鉉化 (66商學) = 〃
▲金喜午 (64政外) = 〃
▲金敬福 (57法學) = 〃
▲黃天午 (41惠專) = 〃
▲曺廷海 (70經營) = 〃
▲金基洙 (64經營) = 〃
▲趙鍾學 (65經濟) = 〃
▲李慧성 (64·불교) = 〃

單名자부납費會久永

▲鄭鉉化 (66商學) =30,000원
▲金喜午 (64政外) = 〃
▲金秉萬 (62국) = 〃
▲李慧성 (64·불교) = 〃

單名자부납料告廣

▲金亨泰 (제25호) =10,000원

각종회비를 납부해주신 여러동문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미납하신 同門들께서는 한결같은 東友愛로 협찬 바랍니다. 각급단위 東友會의 단체분 年會費도 조속 납부바랍니다.

새東國人像 정립을 위해 各種會費의 精誠을 모읍시다

□年會費 = 1人當3,000원
□理事會費 = 年20,000원以上
□永久會費 = 1人當30,000원以上
□常務理事會費 = 年50,000원以上

◇납부처 = 本會사무국(서울中區筆洞3가26東國大學校同窓會)
◇납부방법 = 本社사무국으로 直接납부 또는 電話連絡(267—8568)주시면 來訪하겠으며 우편대체구좌(번호 525669)로 拂入하셔도 됩니다(대체구좌용지는 每신문발송시 同封하고있음)
◇이미 各種會費를 納付하여 주신 同門들에게 感謝드립니다

永久不變 同窓會
萬古成長 東國人

民族의 創造的 意志 재확인

學術강연회 慶州등 4개지구서 개최

11月28日~12月2日 蔚山·浦項·永川등 分校부근

民族의 창조적인 文化傳統을 재인식키고 東國의 學風과 躍進의 이미지를 심어준 全國地方巡廻學術講演會가 금년에는 慶州分校설치와 관련, 오는11月28日부터 12月2日까지 慶州를 비롯한 인근 蔚山·浦項·永川등 인근 4個지역에서만 개최된다.

지난76년 개교70주년 기념사업으로 첫선을보여 全國의 자라나는 새世代들에게 올바른 民族思想과 긍지, 大學文化전파를 통한 地方文化계발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同강연회는 11월 28일 蔚山을 스타트로한 4개지구강연과 함께 「産業社會와 傳統精神文化」라는주제의 심포지움도 개최, 폭넓은 東國의 이미지선양을 모색하게 된다.

실력있는 학생들의 모교進學을 위한 재반분위기조성에도 목적을 두고있는同강연회에는 徐廷柱문리대학장「文學과 人生」등7명의 演士가 나서 文學·民族·人生·文化·價値觀등 민족의 大學으로서 東國이 지향하고있는 傳統정신을 중심으로 강연을 베풀게 된다.

◇강연회日程및演士·演題

▲蔚山(11月28日)=李丙疇「젊은이와 學問」、朴昌鎔「産業社會變動과價値觀」▲浦項(11月29日)=徐廷柱「文學과 人生」、吳國根「青年과 人生」▲永川(11月30日)=張庚鶴「法과社會」、洪起三「青年과大學文化」▲慶州(12月1日)=徐廷柱「文學과 人生」、洪庭植「佛教와社會」▲심포지움主題및 주제발표자(주제=産業社會와 傳統精神文化)

▲張源宗=산업사회속의傳統精神文化의 역할 ▲李箕永=佛教文化의 전통과 現代的조명 ▲徐廷柱=東西洋의 精神文化 ▲綜合討論참가예정자=경주박물관장、경주市內高校長2人、教育長、張源宗、李箕永、徐廷柱、黃壽永。

한편 강연장소와 세부지침은 추후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워싱턴大總長 프리드릭슨博士 鄭총장과 學術交流합의

鄭在覺총장은 지난 27일 來校한 美國이스턴 워싱턴 大學의 조지 프리드릭슨(George Fredric-kson美行政學會長)總長과 兩校間에 교환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할 것과 學生의 交流가 集中的으로 論議되었는데 이에 따라 母校에서는 이달 중旬에 이스턴 워싱턴大로 朴昌鎔(行政學科教授)博士를 파견 交流의 具體化를 위한 회의를 갖기로 合意했다。

이 자리에서는 行政學을 비롯한 여러分野의 專攻教授와 學生의 交流가 公開方法에 의해 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鄭在覺총장 中高校長회의講演

鄭在覺총장은 지난달28일 社團法人 大韓私立中高等學校長會주최 私立中高等學校長회의에 특별연사로 초청을 받아 「스승은 없는가」라는 연제로 강연을 했다。

教育문제심포지움 盛況

主題 「國語教育을 통한 情緒순화」

사범대학(학장=김성배박사) 주최 제9회 教育問題심포지움이 「國語教育을 통한 정서순화」라는 主題로 지난 28일 오후 2시 鄭在覺총장을 비롯한 주제발표자및 토론참가자와 많은 청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교수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제9회 교육심포지움 광경。

物質文明에 상실되어가는 人間性을 青少年 教育에의 해 회복하려는 취지로 열린 이번 심포지움은 金東俊(사범대) 교수의 사회로 1부 주제발표、2부 討論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날 김성배사범대학장은 「國語教育을 통한 정서순화」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최근 청소년들의 心性과 情緒가 도전받고 있는데이것을 바로잡는 중심과목은 국어과요、순화교육의 핵심체는 국어교육이다』고 전제하고 『학교·가정·사회및 국가가 혼연일체가 되어지속적으로 끈기있게 연구실천해야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一部에서는 이어 言語교육면에서 金鍚得(연세대)、古典教育面에서는 張德順(서울大)、文學教育面에서는 許英子(성신여대)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二部 討論은 沈慕鎭(東大附高교장)、洪起三(모교文理大) 교수등 일선교사및 교육계인사 10여명이참가、진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1·2부가 모두끝난 6시부터는 鄭在覺총장이 마련한 리셉션이 복지회관 3층에서 있었다。

法經商系 취업好調

一部學科 1백%취업

10월말 현재 母校의 졸업예정자 就業率이 68·9%로 집계되어 예년에 비해 다소 向上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貿易、電算學科와 法政大의 法學科및 工大의 전축공학과의 경우는 이미 졸업예정자 전원 1백%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특히 입사조건이 까다로운 韓國銀行의경우 3명의 學生이 추천을 통해 취업했고 효성그룹에는 貿易科 政大가 91·9%、工科大가 61·7%、農林大가 44·7%를 기록했다。

大學의 취업률 향상은 經濟發展에 따른 각 기업체의 社勢擴張으로 인한 것과 학교 당국의 적극적인 「就業特講」에 힘입은것으로 보인다。特히 經商大의 경우는 연제로 강연을했다。

東岳語文論集헌정

梁박사 묘소참배

東岳語文論集 제11집 獻呈辭에 지난 10월9일 死逝한 梁柱東 博士 墓所(경기도 용인군所在)에서 있었다。

李丙疇、金起東、崔世和教授등 국문과교수、李相寶(明知大) 교수등 同門、學生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열린 이날 헌정식은 李鍾燦교수의 獻呈辭에 이어 東岳語文學會에서 梁博士 他界 1주기를 기념하여 發刊한 東岳語文論集 헌정이 있었다。

宗教哲學의권위자 R·부리博士來校

鄭在覺母校總長은 지난18일 訪韓中인 宗教哲學의 世界的인 권위자 R·부리博士의 예방을받고 환담을나눴다。

부리博士는 現스위스바젤大學 教授로서 徐景洙(佛教大) 教授의 안내로來校、韓國의 佛教와 本校佛教大의 硏究狀況에 깊은관심을 표명했다。

農林科學 硏究所長 金興培박사 任命

학교당국에서는 지난달9월25일 新任 農林科學硏究所長에金興培(농대농학과) 박사를 임명했다。

金熙燊(農學科) 前所長의 사임으로 지난 22일 동국학원 이사회에서는 신임농림과학연구소장에실험농장長을 역임한바있는 金박사를 임명케 된 것이다。

제5회 卒業美展 在學生발표회도

美術學科 第5回 졸업작품전겸 제9회 在學生 작품발표회인 「東大美展」이지난10월25일부터 11월2일까지 G전館 美術科 전시장에서 있었다。

각 전공별로 東洋畵는 李恩林양의 「女人」등32점、서양화는 吳元培군의 「秘文中에서」등 10명이 40점、조각에는 李點元군의 「새길」등 7명이 28점、佛教古美術분야에는 金昌均군의 「신라四天王 실측도」등 7명이 28점을 출품、총1백28점이 展示되었다。

安全技士資格試驗 土木科서20명合格

기술검정관리공단에서 施行한 第12回建設1級 安全技士資格試驗에 母校에서는 이진오(土木·4)군등 20명이 대거 合格했다。

지난15일실시된 이번 資格試驗의 전형과목은 産業安全管理、應用力學、철근콘크리트공학、수리학、측량학등으로 母校에서는 25명이 응시、20명이 合格한 것이다。

公認鑑定士 1次 經商大生 6명合格

財務部에서 實施한 제2회 公認鑑定士 1次試驗에 鄭興源군(經濟·3)등 6명이 合格했다。

防衛誠金전달

教養學部生들

教養學部 兵營 執體訓練(10월4~13일)에 참가했던金殷浩(연대장·토목1)군등 학생 1천46명은 兵營訓練 期間동안 文武臺에서 募金한 8천3백원을 방위성금 13만원을 지난26일 문화방송·경향신문사에 전달했다。

또한 지난 14일 문무대 퇴소식전 학생들이 募金한 金額의 일부인 약8만원은 문무대 측에 기념타월 2백장을 마련하여 기증한바 있다。

朴峽賢씨 遺作기증

夫君에게 感謝牌

雨鄕 朴峽賢씨의 유작1점이 그의 夫君인 雲甫金基昶화백을 통해 모교에기증했다。

金화백은 지난27일總長室로 鄭在覺총장을 예방하고 雨鄕의 유작 판화「佛陀」1점을 기증했는데、이자리에서 金화백은 『東大의 미술교육에 이바지 하고자故人의 뜻을 받들어 기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鄭在覺총장은 이자리에서 金基昶화백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귀중한 故人의 遺作기증에 깊은 謝意를 표했다。

全國揮毫大會서 宣柱先君 銀賞차지

제2회 全國揮毫大會에서 母校 宣柱先(佛教科)君이 영예의 銀賞을차지하였다。

中央日報、國際書道協會공동주최로 지난22일 全國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3백23명이 참가한 書藝人 가운데 淑明女高에서 출품한 이번 대회에서 宣君은 臨書에서 顔眞卿의 「爭座位」創作부문서 「閼餘」등 한문서예로 銀賞을 수상한 것이다。

教授動靜

▲金영태(佛大교수)李鍾益(〃)교수=지난29일 경북太祖山 桃李寺주최 佛教중흥 학술발표대회에서 主題發表。

▲安思明(經商大教授·전자계산소장)교수=지난21일 연세대에서 열린 韓國情報科學會(컴퓨터학회) 정기총회에서 理事로 선임되어27일 理事會에서 學會부회장으로 選任되었다。任期는2年。

▲南都泳(사범대교수)林英正(文理大강사)교수=지난14일10시에 개막된 단국대부설 東洋學硏究所주최 제8회 西洋學學術會議에 演士로 참석했다。

이번회의는 한국中世文化의 特性—朝鮮王朝前期(Ⅱ)의 공동주제아래 南교수는 朝鮮時代의 목축업을、林강사는 十四·五世紀의 奴婢制度를 發表했다。

經濟學科61年同期會總會개최公告

東國大學校 經濟學科 61年卒業同期會 1978년도 정기총회겸 送年모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會員여러분께서는 주위에 相互연락하여, 빠짐없는 參席있으시기 바랍니다。

日 時：1978年12月1日(土)오후6시30분
場 所：풍전호텔2층회의실
會 費：추후통보

1977年11月 日

東國大學校經濟學科
61年同期會
회장 閔瑛植

追憶

吳河東

생전에 그렇게 정 가셔서 맘 급급 해 영 못 잊도 마음 맘속 있지못해 못내 그립 또 섭니다

人生의 한부분이 이대도록 무상합니다
그리고 홀로 갈바를 영원히 모르십니다
정말 갑작스런 죽음만 보았습니다
진실이 늘 함께 이 영원히 함께함

〈40年史稿草·前原稿整理委員〉

수필

수첩

수첩에서 내 생활을 엿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얼마나 비난할까? 그러나 나는 수첩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수첩에 기록할 만큼 나의 생활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그것은 그 수첩에 기록할 만큼 그 사람의 생활이 복잡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수첩에 기록할 만큼 생활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부러운 것이다.

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그래서 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나는 수첩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그것은 그 사람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수첩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나는 수첩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그것은 그 사람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수첩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友情을 묻는 人生

金 答 詰 <61國文·小說家>

동원 해군훈련에 동참 안 하고 추가로 한번 더 훈련을 받고 나서 동기들보다 한 계급 늦게 소위로 임관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조금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 훈련은 정말 혹독했다. 그 훈련을 받는 동안 나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겨내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확이었다.

그 훈련을 받고 나서 나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나는 그 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 친구들은 지금도 나의 좋은 친구들이다. 나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우정의 소중함을 배웠다.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리더십을 배웠다. 나는 그 훈련을 받기 전에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러나 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리더십은 남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남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겨내는 법을 배웠다. 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정의 소중함을 배웠다. 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國土現況과 시급한 土地의 合理的 國家管理

住香根 〈東亞日本動產株式〉


◇住 同 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위한 토지의 합리적인 관리는 현대국가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도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1972년 12월 30일 국토이용관리법을 제정하였고 1975년 12월 31일 이 법률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77년 7월 1일 이 법률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이용관리위원회 산하에 국토이용관리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법률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위원회는 국토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국토이용관리실무위원회는 국토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국토는 다음과 같이 5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2. 농업지역 : 농업을 위하여 개발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산림지역 : 산림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문화재·문화적 보존 및 국민의 보건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5.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國土調査

우리나라의 경우 6·25동란 이후 6년간에 걸쳐 실시한 토지조사 이후 지금까지 20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그동안 토지의 이동이 심하여 현재 토지대장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곳이 많아 토지에 관한 각종 행정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지적불부합지가 많아 토지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위하여 국토조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租稅合理化방안

부동산의 소유·이용·처분에 따른 각각의 조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제를 정비하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제를 개편하며 종합토지세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政策의 基本方向

토지정책의 기본방향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며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토지의 공개념을 확립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개발을 촉진하며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데 있다.

토지의 공개념을 확립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을 규제하며 개발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며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데 있다.

토지의 공개념을 확립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을 규제하며 개발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며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데 있다.

國土利用管理法

18일 각의에서 통과된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며 보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며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데 있다.

漢文詩集「解土」

宋 赫同門

宋赫同門(49·國文·同德女專)同門의 첫 시집 「解土」가 출간되었다.

「解土」에는 宋同門의 作品 120여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중 39편이 漢詩로 되어 있다.

宋同門은 이 시집에서 「解土」 「解土後記」 「解土感懷」 「解土有感」 「解土偶吟」 「解土述懷」 「解土雜詠」 「解土吟」 「解土述懷」 「解土感懷」 「解土有感」 「解土偶吟